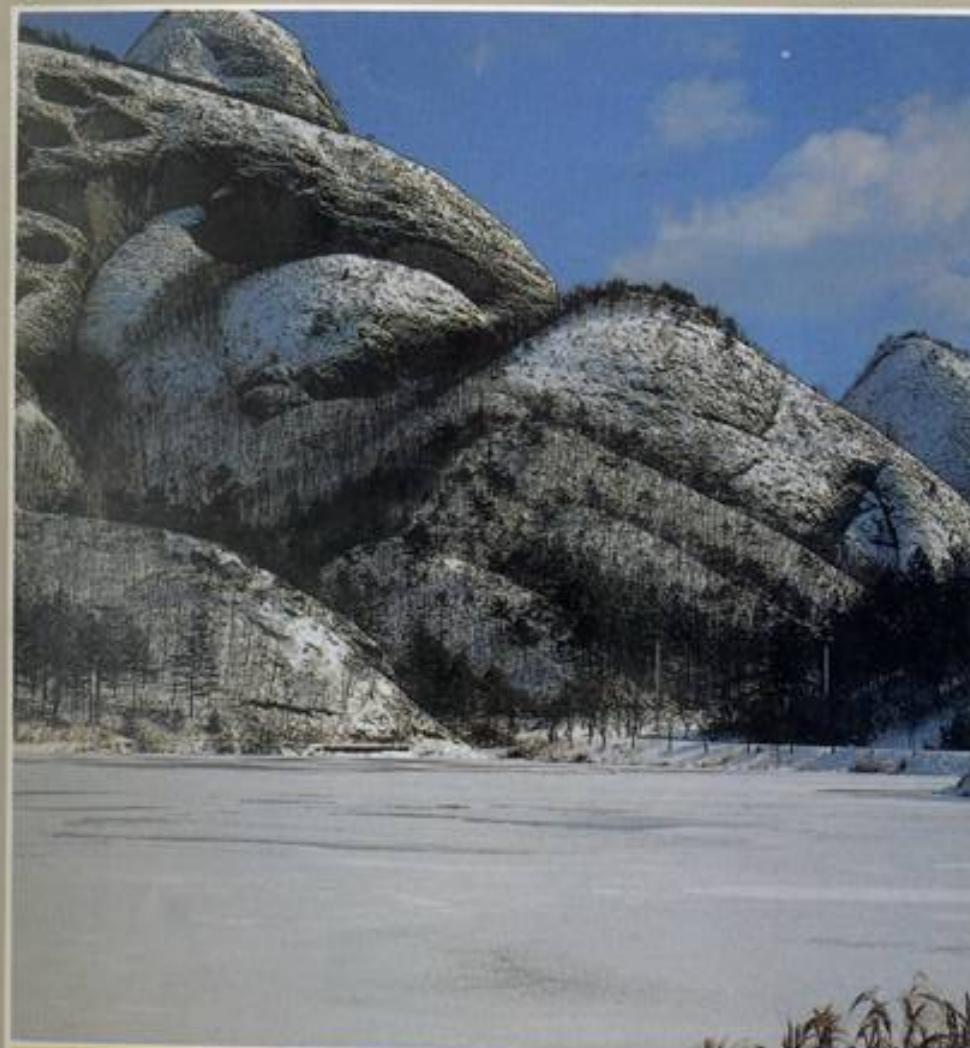


여성

특·집

- ① 94년 여성운동의 방향
- ②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조사



1994 1.2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맛있는 빵·신라명과

신라명과는 1979년 Hotel Shilla의 제과 사업부로 시작하여 최고급 제품 생산을 기업 모토로 운영해온 제과·제빵 전문회사입니다. 1984년 보다 전문적인 제과·제빵 업체로 발돋움 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최고의 제품"만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90년도에 들어서는 제조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프랑스 최고급 식료품 회사인 HED IARD (에디알)사와 기술을 제휴하여 프랑스 본고장의 빵맛을 우리나라에 소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라명과 제품과 만나보세요. 한차원 다른 빵의 세계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신라명과 Family Brand



이런 칫솔 보셨어요? 칫솔모만 바꿔끼면 바로 새칫솔



칫솔모 교체형 아트만 탄생

- 알뜰선택** 바뀌끼는 칫솔모가 2개 더!
- 잇몸보호** 특수스프링의 잇몸보호효과!
- 지압효과** 요철고무에 의한 지압효과!



럭키
아트만
교체형

월간 여성 월간여성12월호 통권314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④ 신년사
우리의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 김경오

특집 I / 94년 여성운동의 방향

- ⑥ 특집 I - ①
여성연대로 여성정책 실현을 / 신용자
- ⑨ 특집 I - ②
세계가정의 해와 여성단체의 역할 / 변화순
- ⑪ 특집 I - ③
개방화 시대의 소비자운동 / 유광필

특집 II /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조사

- ⑬ 특집 II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다
- ⑲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직장내 폭행의 예방과 처벌 시급
- ⑳ 매스컴에 비친 여성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최근의 드라마
- ㉑ 94년은 세계가정의 해
- ㉒ 해외여성통신
가정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부른 로리나 보비트 사건 / 이영남
- ㉓ 여성학 지상강좌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 (IV) / 주애주
- ㉔ 여성계 동향 / 황금희
- ㉕ 협의회 소식
- ㉖ 우리들의 광장



김경오 (본회 회장)

우리의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해묵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다른 새로움으로 새출발을 시작할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일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원년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개혁이 숨돌릴 틈없이 단행되어 신한국으로의 빠른 행보를 재촉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같은 개혁조치가 생활속에 재정착되지 못해 생긴 과도기적 혼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등의 혁신적 제도개혁에서 이제는 전국민의 의식개혁운동차원으로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는 개혁이란 그 효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기 쉽고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여성관련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보완되어 왔지만 실제 효과도 그에 비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지난해 통과된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관련법들이 생활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94년을 맞이하여 여협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자기 혁신을 통해 27개 단체의 협의체로서 단체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을 대변하며 다양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협의체로서 거듭 태어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맞이하는 여협은 새로운 역할 모색을 강구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큰 맥락안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며 '평등한 부부'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에서의 평등교육, 가정의 구조와 기능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조사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여성 지위향상사업으로는, 실시 초기에 있는 시간제근로와 그 변형근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취업에서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취업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남녀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해 매스컴에 나타난 여성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건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평등한 사회구현에 언론이 앞장서도록 매스컴모니터링 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보호사업도 본회의 뼈통을 수 없는 중요사업입니다. 정보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많은 정보가 쏟아지나 정작 소비자의 바른 선택을 돕는 제품의 좋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보의 홍수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단체 가입을 계속 추진하여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단체의 단결과 협력을 기대하며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특·집

- ① 94년 여성운동의 방향
- ②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조사

여성연대로 여성정책 실현을

지난 대통령선거때 각당의 후보는 여성유권자를 향해 늘름하게 여성정책의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럴때 여성은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선거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자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관)

지금 세계는 '여성시대'임을 실감케 하는 여성의 참여와 역할로 그 빛을 더해가고 있다.

각분야 각 계층의 직업의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수상직에도 여성이 드물지 않게 등장하여 여성의 정치적 지도력을 당당히 발휘하고 있다.

인디라 간디, 골다 메이어, 마가렛 대처등과 같은 여자수상의 얘기는 이제 특별한 신화같은 얘기가 아니며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터키, 캐나다 등 여러나라에서 여성수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의례 남자의 독점물이었던 국방부장관, 외무부, 상공부, 법무부장관 자리에 여성이 당당히 앉아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전환점으로 여성의 생활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는 여성자신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변화와 개혁의 요인으로 발전시켰다.

세계적인 역사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차례의 획기적인 행운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첫번째는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정부수립에 따른 참정권 획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랫동안의 꾀박과 투쟁을 거쳐서 겨우 얻어낸 참정권의 전리품을 우리나라

여성은 이를 얻기 위한 아무런 노력과 고통없이 공짜로 얻게된 행운을 가졌다.

두번째는 1970년대의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및 세계 여성 10년 행동계획이다.

1970년대 중반의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사회 환경과 조건의 현대화 발전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때였다. 특히 여성들은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발전에서 따라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핵가족화로 소규모 가족생활로 생활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서서히 자기 자신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져 지난날 남존여비의 억압된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여성의 해'의 목적과 행동계획은 교육받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는 가뭇물 단비와도 같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았다.

1970년대 특히 1975년 이후의 우리나라는 세계여성의 해를 전기점으로 삼아 전통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현대사회로의 변화발전에서 따르는 실로 많은 문제점이 여성의 입을 통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발전에서 매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과 형태로 제시되었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변화발전을 위한 개혁의 동기가 여성에 의하여 빠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여성계'가

형성되고 여성계의 목소리와 힘이 사회제도의 개혁을 주도하는 하나의 힘으로 등장한 셈이다.

오랫동안 서슬이 퍼렇게 버티고 반대해온 유림의 낡은 목소리를 누르고 여성계의 새로운 목소리가 승리를 거두어 드디어 남녀차별의 가족법이 평등의 가족법으로 개정되어 가족사회의 대혁명을 예고하여 주었다.

197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는 여성계를 형성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회로 변화 발전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차례로 마련되었다.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의 주장과 요구가 하나씩 제도적인 방안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문제전담 연구기관(여성개발원)과 여성정책심의위를 위한 정부기구(여성정책심의회)의 탄생에 이어 UN의 '남녀차별철폐 협약'에 가입 당사국이 되었으며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여성발전 부문이 독립된 항목으로 끼어들어, 드디어 국가발전의 기본계획 틀속에 여성정책이 제자리를 잡고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개발원을 통한 활발한 기초연구와 자료개발에 따라 여성발전기본계획(안)과 남녀차별개선지침(안)이 마련되고 이 정책시안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의되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결정되었다.

정부간 비정부간의 국제협력에 활발하여짐에 따라서 우리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 수준도 국제사회의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이 현실화되어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고용평등법이 성립되고 여성의 직업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마련되었으며 1977년도 개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가족법상의 불평등 조항도 대폭 개정되는 가족관계를 둘러싼 대개혁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방법이 또 한차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 정부장관(2)실이 창설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각도와

직할시에 가정복지국이 신설되어 10여명의 여성국장이 한꺼번에 탄생하여 전국적으로 여성정책망이 형성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계는 길지 않은 동안에 팔목할만한 업적을 쌓은데 대한 찬양을 받을만하다 할 것이다.

1990년대의 여성계,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우리나라 여성계가 주도하여 성취한 여성운동의 성과를 발전과정에 따라서 평한다면 1970년대(75년 이후)를 "활발한 문제제기의 연대"로 볼 수 있고 1980년대는 "착실한 제도정비의 연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하고 다양한 원론제기와 이에 따른 착실한 제도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20년전 여성계 전체가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활발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인물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굳이 찾아내서 변명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이 오늘날 걸로나마 이만큼 화려한 환경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은 여성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얻어진 산물이라기 보다는 국내외적인 정치적 사회적 상황변동에 의하여 저절로 얻어진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오히려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해이하게 하고 적극적인 도전의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버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실적을 바탕으로 성숙하게 거듭난 새 모습으로 1990년대의 여성계를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문민정부의 개혁과업의 성공을 염원하며 여성의 참신한 지혜와 행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차별과 소외로 남녀간에 양극현상을 이룬 지난날의 불공정성에서 벗어나려는 지금, 여성정책 추진의 혜택이 특정

소수의 엘리트 여성에게만 돌아가 여성끼리 양극현상을 형성하는 불공정성도 적극 경계하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성은 자립하여야 하며 자율성을 키워야 할 때이다. 여성의 자립이란 유능한 여성 한사람 한사람의 홀로서기 달려가기가 아니고 여성끼리의 연대(Sister Hood)를 이루어 공동의 선과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실행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여성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여성유권자가 힘을 합하면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체험적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은 40년 동안의 집권으로 그 거드름이 극에 달하고 있을때 도이 다카코(사회당 전 당수)가 이끄는 '마돈나 선풍'의 선거공약에 의하여 어이 없이 밀려나고 소수다당의 연립정부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

1987년 총선거 이후 일본의 여성계는 50개 단체가 하나로 뭉쳐 여야를 불문한 여성후보에게 자금 지원과 조직동원에 성과를 올려 오늘날 40년 여당을 권좌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선거에서 연방의회와 주·군의회에서 다같이 여성후보자의 비약적인 증가 현상을 나타냈으며 하원에서만 108명이 입후보하여 48명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전번 임기보다 29명이 늘어난 수이다.

여성이 의회로의 진출에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클라렌스·토마스의 연방최고재판소 법관 승인 과정에서 폭로된 전 여비서 에너티 힐의 성희롱 사건의 영향이 컸다한다.

이 사건을 놓고 열린 청문회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는데 전원 남성인 상원 법사위 위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여성유권자들이 크게 분개하여 정책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한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치연맹에 가입하여 여야를 불문한 여성후보돕기 자금조성에 앞장서 1992년 선거에서는 전미국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거둔 후원단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 2년간을 전부 유급

으로 한다는 여성유권자와의 선거공약을 이행치 못한 사민당이 실권하고 다음 선거에서 야당의 신세가 된 경험을 겪은지 얼마 안된다.

우리나라 여성도 정신을 가다듬어 여성끼리의 연대를 이루어 여성운동과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나설때가 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각당의 후보는 여성유권자를 향해 능률하게 여성정책의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럴때 여성은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선거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의 이러한 역할이 바로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공약의 이행은 반드시 새로운 기구나 인력증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엿하게 마련된 체제로 씨먹지 못하고 사장 되어 있는 각종 관련 법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아 숨쉬게 하여야 한다.

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행위자를 고발하고 법적인 판결을 받도록 여성단체가 앞장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남녀평등정책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촉진방법으로 전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잠정적 특별조치(Affirmative Action)같은 촉진 정책을 도입하여 채용, 배치, 승진, 교육, 훈련등의 일반적인 고용과정에 적용시켜 직장의 하부계층에서부터 제대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아 엘리트로 자라나는 여성인력을 길러내고 이러한 인력이 장차 엘리트 인력으로서 각광받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는데 여성단체도 일조를 해야 한다.

여성정책은 행정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행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정부정책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 3권분립의 원리이다.

여성정책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정책토의장에서 토의되어 확정돼, 지원과 감독이 가능하도록 국회내에 여성정책심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여성유권자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집/① 94년 여성운동의 방향 ②

세계가정의 해와 여성단체의 역할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여성 단체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고용, 교육, 건강, 가족복지 서비스, 가족계획, 농촌, 피난처 및 물리적 환경, 예절,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변희순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UN은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로 선포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센터에 사무국(IYF)을 설치하고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여 이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UN이 '세계가정의 해'를 선포하게된 배경으로는 세계 도처에서 사회와 국가의 구성핵심인 가정이 생산 및 재생산, 사회화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UN의 IYF는 각 국가에 세계가정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단체를 포함하여 지방과 중앙의 활동을 조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족과 가족정책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정책의 수립을 위해 사회내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드러내고,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방식을 모색하고, 가족관련법이 국제인권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정 등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고, 가족을 위한 적절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양은 충분하고 내용은 적절한지, 현존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그 조화, 조정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존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행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가족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훈련의 종류는 무엇

인지, 가장 시급히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와 추진을 저해하는 주요장애를 찾아내고, 동일한 서비스로 더 혁신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고안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매카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개인, 집단, 조직, 기존 자원이 효과적으로 조합되기 위해 각종행사 계획, 배치, 정보의 보급,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제반 사회제도나 현실은 급변하고 있으나 가족에 대한 가치의식은 전통적 가치의식에 대해 항수적이고, 정부에서는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선가정 후사회보장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때 사회변화와 가족변화의 괴리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직계가족 혹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독신가구, 편부모 가족, 노인단독가구,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장애인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변화하는 기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문제를 살펴 보면 첫째, 사회변화에 따른 부부상, 아버지상 어머니상에 대해 재검립, 특히 가정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부부간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더 이상 가정문제로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셋째, 의학의 발달과 양호한 영양상태로 인해 한국도 고령화 시대로

들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부양, 의료관계, 복지 문제는 각 가정의 가족들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네째, 남녀불평등한 종래의 가족관계에서 부부평등, 자녀평등, 부모평등의 민주가족화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시민질서교육도 사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여성 단체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고용, 교육, 건강, 가족지지 서비스, 가족계획, 농촌, 피난처 및 물리적 환경, 예절,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회집단별로는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무능력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는 조직의 모든 회원이 IYF에 적극적 참여 및 행동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어야 하며, UN의 가족에 관한 선언문을 소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채택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YF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고 마약, 여성의 지위, 노령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전도상국가의 가정생활에 관한 국제비교,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여론과 국가각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가 사회변화에 따른 적절한 가족정책을 형성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을 주제로한 합창대회, 문학작품 공모, 연극, 대중매체를 위한 드라마 창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교육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균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제공, 가족의 민주화, 노인과 젊은이간의 결속력 강화, 가사역할의 공유, 정의, 결속, 인내, 타인에 대한 존중,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 권장, 지역 자원의 활용, 마약, 에이즈,

알콜중독 및 흡연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가족에 대한 공동체 역할의 강조.

세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당국은 학교, 병원, 건강을 위한 전문가, 보험회사, 교회, 종교기관, 미디어(TV와 라디오), 아동보육기관, 양로원, 문화 및 사회기관, 청소년 클럽 및 스포츠 클럽과 같은 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친다. 미디어가 가정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제공하도록 한다. 모든 종류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책임과 연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한다.

구체적 행동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가족에 대한 상담과 카운셀링 서비스의 마련, "건강한 가정"을 위한 캠페인의 전개, 가족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 강조, 가정내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 실시 및 남녀의 가사역할의 분담을 위한 가치관 변화, 가족의 권리, 여성 및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의 검토, IYF를 홍보하기 위한 매스컴의 활용, 전단, 팸플릿 및 포스터의 부착, 가족에 관한 논문발간, 기념우표 발행,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가족 서비스 및 특정가족 관련 주제에 대한 가족생애교육에 관한 워크숍 개최, 그리고 위기가족을 위한 현장연구의 시도 등이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 사회단체, 개인들 모두 협력하여 가정내 각 구성원이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 특집/① 94년 여성운동의 방향 ③

개방화 시대의 소비자운동

개방화·국제화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추진해야 할 소비자운동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활동분야를 전문화하여 환경문제, 국민보건의 문제, 식품문제 등 여성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유광필 (대일경제신문 이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비자운동은 대부분이 여성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10개단체 가운데 남성들이 주도하는 단체는 Y·M·C·A와 한국공익문제연구원 2개 단체가 있을 뿐이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도 남성들은 소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다수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소비자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각국이 마찬가지이지만 여성들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자운동과 관계없는 단체들도 자연적으로 소비자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여성운동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들의 권익옹호와 여기에 부수하는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고 자구적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여성단체마다 설립목적이 각각 달라도 소비자문제에 대하여는 공동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대개 여성들은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사업이나 자기 가정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자로 평가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으나 여성들의 용의주도한 업무 및 가사처리 능력이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오늘날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초기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성들이 소박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면서 생활했으나 기업이나 정부관리들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거듭하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단체활동을 통한 강렬한 저항운동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운동과 함께 경제여건의 개선은 인간성 회복 내지 추구에 대한 욕망과 결부되어 소비자운동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은 1960년대에 대량생산체제에 진입하였다. 대량생산체제는 소위 4M시대의 진입을 의미한다. 4M이란 대량생산(Mass Production) 대량판매(Mass Selling) 대량소비(Mass Consumption) 대량전달(Mass Communication)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개인의 요구와 개성은 찾아 볼 수 없고 획일적이고 양적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특색이었다. 과거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상품부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소비는 자연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4M시대가 되면서 소비분야에서는 일종의 혁명적 시기가 도래하였다. 식생활의 개선은 물론이고 가전제품의 보급과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 등으로 소비혁명을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부터 선진국들의 소비자들은 소비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며 집단위주에서 개인본위로, 도시중심생활에서 여가중심생활을 선호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양면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4M시대에서 4P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적정하다는 뜻의 Proper를 인용하여 지금은 적정한 소비(Proper Consumption)로 부터 출발하여 적정한 판매(Proper Selling)를 하며 적정한 정보전달(Proper Communication)에 의해

적정한 생산(Proper Production)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많은 국가에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듯 개성을 존중하며 인간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기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여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났다. 1990년대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일본과 한국의 소비지출비율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수준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2000년대가 되어야 우리나라는 일본의 80년대 소비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측면의 비교자료이며 의식면이나 복지면에서는 거의 시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문제가 된 농산물수입개방문제와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존문제 등은 경제발전보다 더 우선하여 취급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국경없는 개방화시대에는 지구전체가 동반자로서 동일한 생활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은 스스로의 몰락을 촉진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전에 경험했던 낙동강 폐놀방류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낙동강상수 오염문제는 경제지리적 여건을 도외시킨 채 정치적 배려와 지역이기

주의에 끌려다닌 파행적인 경제개발이 가져다 준 정책적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스웨글러(Roger M. Swagler)교수는 앞으로의 소비자문제는 ①여성소비자 ②학생소비자 ③보건·환경문제 ④노인소비자 등 네가지라고 하였다. 소비자문제 가운데 보건·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운동이 전개된 이후 남성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소비자행정의 부재에 기인한다. 소비자행정이 중앙부서와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해야 할 소비자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구태의연하게 중앙부서의 「과」단위에서 소비자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운동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부」나 「청」 정도의 행정단위를 신설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문제를 관장하게 되면 남성공무원을 위시하여 다수의 전문직 남성들이 참여하게 될것이다.

개방화·국제화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추진해야 할 소비자운동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활동분야를 전문화하여 환경문제, 국민보건문제, 식품문제 등 여성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대책이 부족하다

대중매체로 인해 파생되는 역기능적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해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녀교육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자녀의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 정도 및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알아보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I. 서론

1. 조사의 목적

현대 생활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동시에 TV, 라디오, 신문을 비롯하여 비디오, 만화, 영화, 잡지, 광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대중매체와 만나기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계속 만나게 된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너무도 막강하여 우리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이다. 대중매체로 인해 파생되는 역기능적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해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녀교육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자녀의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 정도 및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알아보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결과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언론 환경속에서 대중매체가 보다 건전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대중문화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방법

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조사원이 사전 조사를

거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80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빈도(Frequency)분석을 실시하고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문항간의 교차분석도 행하였다.

실제 조사기간은 199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볼 때, 40대 주부가 전체 응답자의 54.0%로 가장 많으며, 30대 주부가 40.3%로 나타나 30, 40대 주부가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가 30, 40대 주부에 치우치게 된 것은, 본 조사가 청소년층의 자녀를 둔 주부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이하가 16%, 고졸이 49.7%, 대졸(전문대 포함)이 30.5%, 대학원졸 이상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1.1%로 가장 많으며,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주거환경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전체의 5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지역(39.2%)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가지역이나 유흥업소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모두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천구(10.3%)와 성동구(10.0%), 기타 서울외곽도시(9.9%)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 종로구 지역 등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서울 및 수도권 도시지역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응답자의 취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취업주부가 전체의 36.4%(29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직업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28.1%(79명)로 가장 많고,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23.1%(65명), 기타 일용직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족구성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3인가족'의 형태가 6.7%, '4인가족'이 59.1%, '5인가족'이 22.6%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모와 자녀 2~3명으로 구성된 '4~5인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94.7%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구조를 갖고 있으며, 응답자 가운데 4.5%의 주부들이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거나

남편이 없는 가족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자녀가 어느 정도의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취학전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주부들이 전체의 12.4%, 국민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주부가 57.6%, 중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주부가 54.8%,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주부가 40.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4~5인 가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체 응답자들 대다수가 청소년층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일반적 평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생활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들 가운데서 어떤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매체(중복응답)

매 체	빈도수	%
텔레비전(TV)	303	37.5(N=807)
라 디 오	7	0.9(N=807)
신 문	10	1.2(N=807)
잡 지	322	39.9(N=807)
비 디 오	526	65.2(N=807)
영 화	124	15.4(N=807)
만 화	169	20.9(N=807)
광 고	129	16.0(N=807)
컴 퓨 터	24	3.0(N=807)
기 타	37	4.6(N=807)

우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매체들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807명) 가운데 65.2%의 주부들이 비디오를 가장 부정적 영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항목	정도 문제없다	별 로 문제없다	보 통 이 다	악 간 문제있다	매 우 심각하다	무응답	계
음 란 성	10(1.2)	23(2.9)	80(9.9)	343(42.5)	323(40.0)	28(3.5)	807(100.0)
퇴 폐 성	11(1.4)	30(3.7)	101(12.5)	335(41.5)	296(36.7)	34(4.2)	807(100.0)
폭 력 성	8(1.0)	30(3.7)	67(8.3)	262(32.5)	416(51.5)	24(3.0)	807(100.0)
외 래 지 향 성	12(1.5)	41(5.1)	149(18.5)	306(37.9)	234(29.0)	65(8.1)	807(100.0)
소 비 지 향 성	13(1.6)	37(4.6)	141(17.5)	323(40.0)	251(31.1)	42(5.2)	807(100.0)
성 차 별 조 장	26(3.2)	102(12.6)	249(30.9)	275(34.1)	97(12.0)	58(7.2)	807(100.0)

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응답하였으며, 잡지가 39.9%, TV가 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매체로는 라디오, 신문, 컴퓨터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매체들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전체의 3.0% 미만이었다.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요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주부들의 84.0%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매체의 폭력성향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란성이 82.5%, 퇴폐성이 78.2%, 소비지향성이 71.1%, 외래지향성 66.9%, 성차별조장이 46.1%의 순으로 다소 문제가 있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5%)이 대중매체의 폭력성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여,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가 1대일 경우의 채널선택권(N=360)

항 목	빈도수	%
남 편	90	25.0
주 부	37	10.3
자 녀	69	19.2
기 타 가 족	10	2.8
가족간의 합의	146	40.6
무 응 답	8	2.2
계	360	100.0

3. TV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의 가정에 TV가 몇 대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TV수상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TV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53.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전반적인 TV시청경향이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시청형태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시청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V가 1대라고 응답한 주부들에게 채널선택권이 주로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360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40.6%가 '특정 가족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응답하였으며, 특정 가족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남편'이 가장 많았고(25.0%),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TV프로그램 유형

항 목	빈도수	%
뉴스	22	2.7
드라마	131	16.2
쇼/코미디	288	35.7
교양/다큐멘터리	5	0.6
만화/어린이	313	38.8
TV영화	33	4.1
TV과외	8	1.0
기타	6	0.7
무 응 답	1	0.1
계	807	100.0

‘자녀’(19.2%), ‘주부’(10.3%), ‘기타 가족’(2.8%)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채널 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부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TV시청실태에 대해 주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평일에는 평균 2시간 8분정도 TV를 시청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평균 4시간 30분 정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평일에 비해 주말/공휴일의 TV시청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각 가정의 자녀들은 ‘만화 및 어린이 프로그램’(38.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쇼/코미디 프로그램’(35.7%), ‘드라마’(16.2%)의 순으로 선호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3%미만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TV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으로는 ‘쇼/코미디’가 7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TV광고’(60.2%), ‘드라마’(51.8%)의 순이었다.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유형이라고 평가된

항목으로는 ‘교양/다큐멘터리’가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V과외’가 74.5%, ‘뉴스’가 59.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아, 주부들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들에 대해 부정적인 유형과 긍정적인 유형을 확연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항 목	빈도수	%
학습에 지장을 준다	391	48.5(N=807)
모방행동 많이 한다	458	56.8(N=807)
성에 일찍 관심을 갖게 한다	107	13.3(N=807)
건전사고 형성에 나쁜 영향	168	20.8(N=807)
소비를 조장한다	153	19.0(N=807)
기 타	8	1.0(N=807)
별로 나쁜 영향이 없다	21	2.6(N=807)

또한, TV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요소들 중에서도 어떤 요인들이 보다 크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소들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TV시청을 통해 ‘모방행동을 많이 한다’(n=458, 56.8%)는 점

TV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그램 유형별 평가

정도 유형	매우 나쁜 영향을 주 고 있다	다소 나쁜 영향을 주 고 있다	별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 좋은 영향을 주 고 있다	매우 좋은 영향을 주 고 있다	무응답	계
뉴스	2(0.2)	55(6.8)	238(29.5)	287(35.6)	190(23.5)	35(4.3)	807(100.0)
드라마	15(1.9)	403(49.9)	282(34.9)	78(9.7)	4(0.5)	25(3.1)	807(100.0)
쇼/코미디	138(17.1)	427(52.9)	181(22.4)	42(5.2)	7(0.9)	12(1.5)	807(100.0)
교양/ 다큐멘터리	4(0.5)	11(1.4)	89(11.0)	321(39.8)	343(42.5)	39(4.8)	807(100.0)
만화/인형극	9(1.1)	138(17.1)	366(45.4)	222(27.5)	38(4.7)	34(4.2)	807(100.0)
TV 영화	36(4.5)	295(36.6)	287(35.6)	131(16.2)	13(1.6)	45(5.6)	807(100.0)
TV 과외	5(0.6)	16(2.0)	122(15.1)	246(30.5)	355(44.0)	63(7.8)	807(100.0)
TV 광고	88(10.9)	398(49.3)	253(31.4)	35(0.5)	4(0.5)	29(3.6)	807(100.0)

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학습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도 48.5%(n=391)나 되어, 주부들에게 이 두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요소들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고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20.8%(n=168), ‘소비를 조장한다’가 19.0%(n=153), ‘성에 일찍 관심을 갖게 한다’가 13.3%(n=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TV 프로그램의 93년 가을개편에 대한 주부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개편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전체 응답자의 4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부들의 경우, 각 방송사의 가을개편에 대해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주부가 전체 응답의 29.7%를 차지해 지난번 획기적인 개편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세 방송국의 개편에 대해 일반인들이 인식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 자녀에게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명을 1개 이상 적어달라고 한 결과, 모두 122개 프로그램이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으며, 가장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15명의 주부가 KBS 2 TV의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답해 절대 우위를 보여주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예시가 없었던 개방식 문항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특정프로그램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교육방송(EBS)을 꼽은 주부가 62명이었으며, 3위는 KBS 1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58명), 4위는 MBC ‘(신)인간시대’(53명), 5위는 MBC ‘(세계로 가는) 장학퀴즈’(42명), 6위는 SBS ‘공룡선생’(35명), 7위는 MBC ‘사춘기’(33명), 8위는 EBS ‘TV 과외’(25명), 9위는 MBC ‘전원일기’(16명), 10위는 MBC ‘뉴스 데스크’(12명)로 나타났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 자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명을 1개 이상 적어달라고 한 결과, 36명의 주부가 KBS TV의

‘사건 25시’라고 답해 청소년에게 가장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의 첫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MBC ‘경찰청 사람들’(28명)이었는데 이로 보아 주부들이 수사물이 자녀들에게 아주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BS 2 ‘한바탕 웃음으로’(27명)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27명)이 공동 3위였으며 5위는 MBC ‘여자의 남자’(14명)였으며, KBS 2 ‘백색미로’(11명)와 SBS ‘열려라 웃음천국’(11명)이 공동 6위, 8위는 SBS ‘영화특급’(9명), KBS 2 ‘트윈픽스’와 SBS ‘주병진 쇼’에 각각 7명이 응답하여 공동 9위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을 대별해 보면 쇼, 코미디 부문이 165명이었고 드라마가 88명, 외화가 22명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 10명의 주부가 자녀에게 권장할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건 25시’와 ‘경찰청 사람들’의 경우 각각 9명이 권장할만하다고 응답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 언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내포한다고 하겠다.

4. 비디오에 대한 평가

주부들의 자녀의 비디오 시청형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한 달 평균 몇 편 정도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자녀들은 한 달 평균 2편 정도의 비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시청하는 비디오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43.5%가 자녀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들의 합

자녀들이 시청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선정방식

항 목	빈도수	%
가장(남편)의 선택에 따른다	39	4.8
주부의 선택에 따른다	57	7.1
자녀들의 선택에 따른다	351	43.5
가족들의 합의에 따른다	152	18.8
각자의 취향에 따른다	129	16.0
무 응 답	79	9.8
계	807	100.0

의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는 18.8%로 나타났고, 주부나 남편이 선정하여 주는 경우도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이 시청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대체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즐겨 시청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유형 (중복응답)

항 목	빈도수	%
애 정 물	33	4.1(N=807)
액 셴 물	285	35.3(N=807)
코 믹 물	266	33.0(N=807)
추 리 물	86	10.7(N=807)
드 라 마	85	10.5(N=807)
만 화 영 화	270	33.5(N=807)
공 상 과 학 물	162	20.1(N=807)
류 지 켄	30	3.7(N=807)
학 습 용	18	2.2(N=807)

또한, 자녀들이 즐겨 시청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유형은 주로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액션(n=285, 35.3%), 만화영화(n=270, 33.5%), 코믹물(n=266, 33.0%)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프로그램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상과학물(n=162, 20.1%), 추리물(n=86, 10.7%), 드라마(n=85,

10.5%)류의 프로그램 유형들이 그 다음의 선호 프로그램 부류인 것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주부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의 비디오 선호 프로그램들은 TV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방식

항 목	빈도수	%
가족과 함께 시청	419	51.9
자녀들만 시청	274	34.0
친구들과 시청	50	6.2
비디오방/만화가게에서 시청	6	0.7
무 응 답	58	7.2
계	807	100.0

자녀들이 비디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족들과 시청한다고 응답한 주부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들만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주부들도 34.0%나 되었으며, 친구들과 시청하는 경우(6.2%)나 비디오방 혹은 만화가게에서 시청한다고 응답한 경우(0.7%)는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항 목	빈도수	%
학습에 지장을 준다	262	32.5(N=807)
모방행동 많이 한다	227	28.1(N=807)
성에 일찍 관심을 갖게한다	167	20.7(N=807)
건전사고 형성에 나쁜 영향	261	32.3(N=807)
소비를 조장한다	176	21.8(N=807)
기 타	13	1.6(N=807)
별로 나쁜 영향이 없다	25	3.1(N=807)

또한, 비디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요소들에 대하여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학습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32.5%(n=2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전한 사고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32.3%(n=261), '모방행동을 많이 한다'가 28.1%(n=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디오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부들의 반응은 TV 프로그램의 경우에 비해 각 영향요소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한 영향요소에 대해 뚜렷하게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기 보다는 상당히 여러 요소에 걸쳐 포괄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들의 음란비디오 시청가능성에 대한 판단

항 목	빈도수	%
보지 않을 것임	525	65.1
볼지도 모름	149	18.5
보는 것을 확인	33	4.1
잘 모름	77	9.5
무 응 답	23	2.9
계	807	100.0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음란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주부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65.1%)라고 응답함으로써 자녀들의 비디오 시청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녀들이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도 4.1%(33명)가 있었다.

음란비디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 목	빈도수	%
잘 모르겠다	14	1.7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10	1.2
다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196	24.3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569	70.5
무 응 답	18	2.2
계	807	100.0

자녀들의 음란비디오 시청가능성과 응답자들의 학력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응답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비디오 시청행위에 대해 더 높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자녀들의 비디오 시청행위에 대한 신뢰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란비디오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주부들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70.5%나 되었으며, 다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음란비디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5. 만화책에 대한 평가

자녀들의 만화책 이용정도

항 목	빈도수	%
거의 매일 본다	224	27.8
가끔 본다	389	48.2
거의 안본다	146	18.1
전혀 안본다	45	5.6
무 응 답	3	0.4
계	807	100.0

자녀들의 만화책 이용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끔 본다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본다는 응답이 27.8%, 거의 안본다는 응답이 18.1%, 전혀 안본다는 응답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주부들과 다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각기 39.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약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이 13.6%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매체에 비해 만화책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 목	빈도수	%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29	3.6
다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322	39.9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2	39.9
약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110	13.6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13	1.6
무 응 답	11	1.4
계	807	100.0

6. 라디오에 대한 평가

자녀들의 평상시 라디오 청취실태에 대해 주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라디오의 영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설문 내용의 경우에는 라디오의 심야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연령층을 고려하여 국민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분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제한하였다.

자녀들의 라디오 청취 정도

항 목	빈도수	%
거의 매일 청취	257	37.2
일주일에 한두번 청취	153	22.2
한달에 한두번 청취	36	5.2
거의 듣지않는 편이다	220	31.9
모르겠다	9	1.3
무 응 답	15	2.2
계	690	100.0

응답자 가정의 자녀들이 라디오를 어느 정도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37.2%의 주부가 자녀들이 거의 매일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거의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1.9%로 그 다음이었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청취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일 평균 라디오 시청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한 결과, 주부들은 자녀들이 하루 평균 1시간 42분 정도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주부들 자신이 직접 심야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해 본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청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은 전체 690명중에서 30.0%에 해당하는 207명이었다.

또한 자녀들이 심야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지에 대해 최근의 확인유무를 살펴본 결과, 청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 본적은 없지만 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 본 적은 없지만 청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항 목	빈도수	%
학습에 지장을 준다	312	45.2(N=690)
모방행동 많이 한다	86	12.5(N=690)
성에 일찍 관심을 갖게한다	23	3.3(N=690)
건전사고 형성에 나쁜 영향	77	11.2(N=690)
소비를 조장한다	14	2.0(N=690)
기 타	18	2.6(N=690)
별로 나쁜 영향이 없다	175	25.4(N=690)

심야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요소들에 대해 주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중복응답 처리하여 살펴본 결과, 학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주부들이 전체 690명의 응답자 가운데 45.2%로 나타났고, 모방행동을 많이 한다는 점을 지적한 주부들이 12.5%, 건전한 사고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 주부들이 11.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야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주부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라디오 청취로 인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프

로그램 외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신문에 대한 평가

자녀들의 신문매체이용과 관련하여 주부들이 신문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주로 읽는 신문의 종류와 스포츠신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 경우에도 라디오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분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제한을 하였다.

자녀들이 주로 읽는 신문의 종류

항 목	빈도수	%
종합일간지	333	48.3
경제전문지	17	2.5
스포츠신문	172	24.9
기 타	99	14.3
무 응 답	65	10.0
계	690	100.0

자녀들이 주로 읽는 신문의 종류가 어떠한 가를 확인해 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정도인 48.3%의 주부들이 종합일간지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읽는 신문의 종류는 스포츠신문(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신문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항 목	빈도수	%
학습에 지장을 준다	39	5.7(N=690)
모방행동 많이 한다	129	18.7(N=690)
성에 일찍 관심을 갖게한다	228	33.0(N=690)
건전사고 형성에 나쁜 영향	36	5.2(N=690)
소비를 조장한다	27	3.9(N=690)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부분에서 살펴보았 다시피, 신문매체는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극히 적은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신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전달의 기능에 치중하기 보다 오락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신문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일찍 관심을 갖게한다는 점(33.0%)이 가장 큰 영향요소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음란잡지에 대한 평가

누구나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성인용 음란잡지들에 관련하여 주부들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국민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들만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자녀들의 음란잡지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항 목	빈도수	%
보지 않을 것이다.	431	62.5
볼 지도 모르겠다	143	20.7
보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29	4.2
잘 모르겠다	78	11.3
무 응 답	9	1.3
계	690	100.0

자녀들이 성인용 음란잡지들을 구입해 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혹시나 볼 지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0.7%였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 성인용 음란잡지를 보는 것을

음란잡지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 목	빈도수	%
잘 모르겠다	14	2.0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12	1.7
다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188	27.2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470	68.1
무 응 답	6	0.9
계	690	100.0

확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도 29명(4.2%)이 있었다.

성인용 음란잡지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95.3%)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며,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주부들이 68.1%로 나타났다.

9. 컴퓨터에 대한 평가

국민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들로 응답자들을 제한하여 컴퓨터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응답자 690명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46.1%의 주부들이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들이 가끔 이용한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17.3%,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5%,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 과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약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5%나 되었다. 하지만,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6.8%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컴퓨터의 음란 프로그램에 대한 주부들의 이해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들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아마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71.7%로

자녀들의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항 목	빈도수	%
보지 않을 것이다.	495	71.7
볼 지도 모르겠다	76	11.0
보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12	1.7
잘 모르겠다	61	8.8
무 응 답	46	6.7
계	690	100.0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볼 지도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0%였고, 자녀들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응답자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부들도 1.7%(12명)가 있었다.

컴퓨터의 음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 목	빈도수	%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10	1.4
다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169	24.5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416	60.3
잘 모르겠다	57	8.3
무 응 답	38	5.5
계	690	100.0

컴퓨터의 음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부들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디어 교육과 매체환경개선에 대한 견해

응답자들에게 '미디어 교육'에 관한 몇 가지 항목과 매체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자녀의 성 교육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미디어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27.4%였고,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직접 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였으며, '미디어 교육'을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8.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학력에 따라 교차분석해 보면 고학력일수록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하거나 직접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항 목	빈도수	%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49	6.1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지금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287	35.6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325	40.3
당연히 교육시켜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85	10.5
무 응 답	61	7.6
계	807	100.0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주부들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서 10.5%는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인 반면에,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35.6%이고 전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마다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를 인정하는 응답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미디어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410명중 52%가 학교수업을 통해 실시

가장 바람직한 미디어 교육 실시방법(N=410)

항 목	빈도수	%
학교수업을 통하여	214	52.2
대중매체를 통하여	113	27.6
사회단체를 통하여	58	14.1
공공기관을 통하여	13	3.2
기 타	4	1.0
무 응 답	8	2.0
계	410	100.0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27.6%, 사회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14.1%,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에 3.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중매체 서로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부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바로 '매체 스스로의 정화 노력'이라는 응답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미디어 교육'(18.7%), '청소년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사표명'(15.6%), '정부차원의 행정규제'(13.5%) 등의 방법이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람직한 매체환경 개선방법

항 목	빈도수	%
미디어 교육	151	18.7
매체 스스로의 정화노력	287	35.6
정부차원의 행정규제	109	13.5
청소년/학부모의 적극적 의사표명	126	15.6
사회단체의 시민운동	62	7.7
기 타	3	0.4
무 응 답	69	8.6
계	807	100.0

만화/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항 목	빈도수	%
강력한 행정처분	621	77.0
불매운동	123	15.2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	14	1.7
잘 모르겠다	31	3.8
무 응 답	18	2.2
계	807	100.0

또한, 성인용 만화나 비디오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에게 대여해주는 업소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를 질문한 결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응답도 15.2%로 나타나,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주부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 실시여부 및 방법

항 목	빈도수	%
전혀 시키지 않는다	161	20.0
질문할 경우에만 교육 실시	489	60.6
질문할 경우 회피한다	7	0.9
적합한 책이나 자료를 제공	101	12.5
기 타	34	4.2
무 응 답	15	1.9
계	807	100.0

청소년들의 성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혹은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녀들이 질문할 경우에만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였고, 자녀들에게 성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책이나 자료를 구입해 주는 것과 같이 상당히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12.5%나 되었다.

이를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성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책이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항 목	빈도수	%
전혀 필요없다	72	8.9
다소 필요하다	582	72.1
당연히 있어야 한다	136	16.9
무 응 답	17	2.1
계	807	100.0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교육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다소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6.9%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생활주변의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어달라고 한 결과 143명의 주부가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 가게 등을 없애거나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주부들이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게들이 학교주변에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또 56명이 유흥업소, 불법업소 등 청소년 유해 퇴폐업소 단속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54명의 주부가 주변의 교통, 차량, 주차문제, 소음, 위험시설,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 개선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생활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들 가운데서 어떤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중매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순위	제시 의견	응답자수
1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폐지 및 정비	143
2	유흥업소, 불법업소 등 청소년 유해 퇴폐업소 단속	56
3	교통, 차량, 주차, 소음, 위험시설,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 개선	54
4	잡상인, 사행심 조장품, 조잡품 판매 단속	28
5	불량 청소년, 불량인, 걸인 단속	22
6	불량식품, 무허가 음식점 단속	20
7	음란성 영화포스터, 광고, 전단 등 부착, 배포 단속	14
8	서점, 도서관, 음악실 등 청소년용 공간 증설	11
9	기타(전화노래방, 퀴즈 등 판촉물 배포, 담배자판기 금지 등)	14

체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주부들은 생활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매체들 가운데 비디오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잡지와 TV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체인 반면, 라디오나 신문, 컴퓨터 등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보아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부들이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요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주부들의 84.0%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매체의 폭력성향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란성이 82.5%, 퇴폐성이 78.2%, 소비지향성이 71.1%, 외래지향성 66.9%, 성차별조장이 46.1%의 순으로 다소 문제가 있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5%)이 대중매체의 폭력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여,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들에 대해 부정적인 유형과 긍정적인 유형을 확연히 구분하여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쇼/코미디, TV광고,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교양/다큐멘터리, TV과외, 뉴스 등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TV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TV시청을 통해 '모방행동'을 많이 한다는 점과 TV시청을 통해 학습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주부들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생각하고 있는 비디오의 경우에도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모방행동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청소년들의 비디오 시청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디오 시청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음란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65.1%가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디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를 보이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992년에 체육청소년부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의 46.1%가 음란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의 결과치와 비교해 볼 때, 주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들은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를 한다기 보다 오히려 라디오 청취로 인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프로그램 외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용 음란잡지의 영향에 대해서는 주부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성인용 음란잡지들을 구입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부들의 62.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아마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볼 지도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주부들은 11.1%였다. 그러나, 체육청소년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의 30.1%가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음란한 컴퓨터디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들의 실제 이용실태와 주부들의 인식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부들의 절대 다수가 음란비디오, 음란잡지,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 등의 매체가 청소년에게 매우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자녀들은 이러한 매체에 접촉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부들이 자녀들의 인성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매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선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중매체 서로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부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바로 '매체 스스로의 정화노력'이라는 응답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미디어 교육'(18.7%)이나 '청소년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사표명'(15.6%), '정부차원의 행정규제'(13.5%) 등의 방법이 그 다음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주부들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그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 가운데서 10.5%는 그 시기가 빠른수록 좋다는 의견인 반면에,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부들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상당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디오나 잡지, TV 매체에 대해 우려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들이 다소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지며, 자신의 자녀들이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태와 주부들의 인식간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매체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매체 스스로의 정화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나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의 매체상황이나 주부들의 인식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뿐만 아니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대중매체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보고서

직장내 폭행의 예방과 처벌이 시급 (93. 8. 1~12. 31, 한국여협 근로여성고발창구)

93년 하반기 접수내용의 특징은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던 직장내폭행이 1위를 차지한 것이며, 이는 최근 직장내 성희롱 시비를 일으킨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같이 새로운 고용상의 성차별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예방과 처벌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고발접수 내용

199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된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내 폭행 12건(29.3%) 부당대우 8건(19.5%) 임금체불 8건(19.5%) 결혼·임신 후 퇴직중용 4건(9.8%) 부당해고 3건(7.3%) 기타 6건(14.6%)이었다.

93년 하반기 접수내용의 특징은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이던 직장내폭행이 1위를 차지한 것이며, 이는 최근 직장내 성희롱 시비를 일으킨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같이 새로운 고용상의 성차별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예방과 처벌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유형별 고발사례

1. 직장내 폭행

사례1)비서로 근무하는 상담인은 상사로 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여러번 항의를 했지만 '좋은게 좋은거 아냐'라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벼운 타격을 자꾸 시도하여 고민하다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93. 8. 19)

사례2)상담인은 직장상사로 부터 상사 반말, 언어폭행 등을 당해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하자 손찌검을 당했다. 상담인은 이 일로 사장에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얘기하자 별 반응이 없이 '여자가 참아라'라는 말만 들었다. 병원 진단서 2주를 받은 상태에서 고소를 생각중이다.(93. 8. 25)

사례3)가방수출업체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평소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화일로 맞기도 했다. 그런데 7월 23일 아침에는 라벨무더기(5~600장)로 구타를 당해 얼굴과 온몸에 전치 1주의 상처를 받았다. 상담인은 이를 계기로 사장에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본인도 사직서를 제출했다.(93. 8. 27).

사례4)14년전 건설업체에 근무중이던 상담인은 상사로 부터 세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퇴사할 수 없었던 상담인은 그런 일이 계속되자 불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안하여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누군가 알까봐 감히 고소할 생각도 못했는데 고소기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93. 9. 14)

사례5)상담인은 직장 상사로 부터 92년도 입사 이후 93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정식으로 항의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자, 추행은 그만 두었으나, 그로인한 충격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93. 10. 26)

- 직장내 폭행은 반말이나 성적농담, 가벼운 접촉에서 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 강간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고 있다. 직장내 폭행의 문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폭행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례2)와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성추행에 해당되는 지가 의문이고, 실제로 남자직원들은 성적농담등을 '직장내의 활력소' 정도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그냥 넘겨 버리거나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소극적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직장상사인 교수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임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다툼을 시작한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임금차별등 제도적인 성차별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도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 문제라는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외국판례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노동의 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을 불쾌하고 굴욕적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여성민우회가 93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응답자 458명 중 87%가 어떤 형태로 든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해 우리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일상적인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 여직원은 창피, 분노, 모멸감에서 부터 대인혐오, 불신, 일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 제33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제11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외에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는 여성 뿐 아니라 기업측에도 생산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직장내의 올바른 성윤리에 관한 내용을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례2)와 사례3)은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사례4)는 고소기간(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사례1)과 사례5)와 같은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2. 결혼·임신후 퇴직 중용

사례6)상담인은 보건전문대를 졸업하고 경북의 S병원에서 87년 5월 15일부터 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임신후 계속 퇴직을 종용받다가 산달이 다가오자 산후 2주만 쉬라는 병원측의 통보를 받았다. 산후에 몸이 좋지 않아 4주를 쉬고 출근하자 (7. 26~8. 23) 병원측은 상담인을 병리실에서 산부인과실로 전출시켰다.(9. 18) 그런데, 산부인과로 인사이동 한 후에도 간호사를 통해서 퇴직을 종용하여 항의하자 원장이 폭행을 해 줄도한 일까지 발생했다.

S병원은 결혼후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며 드물게 결혼 후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산후휴가는 2주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상담인은 이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고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본인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93. 10. 20)

사례7)D회사 사장 비서실에서 8년째 근무중인 상담인은 결혼 날짜를 알리자 기혼자는 근무할 수 없다는 관례를 깨뜨릴 수 없으니 1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비서실에서 총무과로 발령을 냈다. 결혼 특별휴가후 총무과로 출근했으나 일을 주지 않고 계속 퇴직을 종용하다가 12월 29일자로 인천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전보통보를 받았다. 상담인은 이번 전직은 결혼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상담인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93. 12. 28)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결혼퇴직제가 그 모습을 감추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업내의 결혼·임신후 퇴직 중용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6)의 병원에는 산후 2주만에 부기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는 여직원이 2명이나 되고 사례7)의 회사에는 기혼 여직원이 한명도 없다. 이런 사례는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작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관행으로 남아있어 '남녀고용평등'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기업측에서는 여사원이 결혼하게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혼여사원을 자연적으로 꺼리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은 인류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결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휴가나 자녀양육에 필요한 휴가 등의 비용은 사회보험 등을 통해 충당하여 기혼여성을 꺼리는 사회분위기를 없애고, 육아휴직도 남녀공유하게 하여 육아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사례8)직원이 23명인 E회사의 편집실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이사로 부터 돌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근속년수가 많아 월급도 많이 지출되고 남자 직원들이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회사설립 당시부터 2년 넘게 열심히 일한 일터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결혼퇴직제가 그 모습을 감추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업내의 결혼·임신후 퇴직 중용은 성행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상담인은 삶의 회의까지 느꼈다고 한다.(93. 12. 1)

사례9) 11월 16일부터 출산휴가 중이었던 상담인은 12월 20일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측은 12월 18일에 전화해 다른 직원을 채용했으니 10월 말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93. 12. 29)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해고의 일방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 조항의 취지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면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다든

지, 또는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는 부당해고로 판단됨으로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93년 9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 한국통신전화교환원 김영희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에서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과 차별을 뒤 53세로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김영희씨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의 1차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복직시켜라"고 결정했다. 김영희씨는 지난 92년말 차별 정년의 위기에 놓이자 본회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시키고 노동부에 진정,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하고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화교환직종뿐 아니라 여타 다른 부문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결정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것이 확실해 남녀 성차별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93년 10월 3일자로 이의를 제기, 현재 행정소송중이다.

4. 부당대우

사례10) X보증기금 동수원지점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8월 14일자로 부산 북부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자녀가 2명이었고 남편의 근무지도 서울이라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군다나 함께 전보 발령을 받은 남자직원 3명은 모두 본인이 원했

거나 연고지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퇴직을 종용하는 부당대우라고 상담인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93. 8. 16)

-부당 전직의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 당시의 내용에 기초해서 취업규칙에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인사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야 위사례가 인사권 남용인가를 알 수 있다. X보증기금의 취업규칙상 발령후 7일 이내에 부임해야 하나 그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까지 그 기간이 유보된다.

사례11) 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인은 산·후 휴가를 45일에서 35일로 감축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93. 8. 17).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60일 이내의 산전후 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고충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사례12) 상담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정식 직원외에 용역회사에서 소개받은 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회사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은 물론 복지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도 중간에 수수료를 갈취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지 문의. 용역회사의 특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근로자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적극 막아주기를 부탁함.(93. 9. 20)

-현재 근로기준법은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용역회사가 성행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 이의 합법화를 주

장하고 있어 요즘 파견법제정이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상담인의 의견대로 여성계에서는 파견법제정으로 피해보는 것은 여성이라고 판단하고 사례조사 등을 통해 파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의 법적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례13)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상담인은 기능직(대부분 여성)의 정년이 45세로 사무직보다 13세나 낮은데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93. 9. 1)

-먼저 인사규정을 검토해 보고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노동부에 고소하도록 권유.

사례14) 간호사로 취업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상담인은 10월 30일이 발령일인데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발령을 낼 수 없으니 임시적으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면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93. 10. 22)

-근로계약 체결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받아들이지 말고, 해고통보를 받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하도록 권유.

5. 기타

기타 접수의 내용에는 불법계약, 산업재해보상과정, 퇴직금 문의, 인력관리(용역)회사의 횡포등이었다. 이 중에는 현직 교장 선생님(男)의 따뜻한 건의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교원승진규정은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만 출산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여교사들이 교장, 교감등으로 승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노고만큼 인류를 재생산하는 출산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었다.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최근의 드라마

논의의 내용을 기존의 드라마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우선 소재가 다양해지고 시청층을 폭넓게 겨냥한 점과 남성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혹은 코믹하게 전달코자 한 점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 더불어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점도 함께 짚어 보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월 26일 모임에서 그동안 모니터해 온 「서울의 달」(MBC 주말연속극), 「마지막 승부」(MBC 월화 미니시리즈)와 「남자는 외로워」(KBS2 주말연속극), 「왕십리」(KBS2 수목 미니시리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네편의 드라마를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이유는 방송사에서 이제까지의 여성취향의 드라마로 간주되어왔던 기존의 드라마의 틀을 벗어난 '남성 드라마'임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의의 내용도 기존의 드라마와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우선 소재가 다양해지고 시청층을 폭넓게 겨냥한 점과 남성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혹은 코믹하게 전달코자 한 점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 더불어 발견되는 몇가지 문제점도 함께 짚어 보았다.

1. 다양해진 소재

드라마마다 특색있는 소재로 개성을 살려서 드라마간의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본다.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마인 「마지막 승부」는 겨울철의 인기 스포츠 종목인 농구를 소재로 하여

드라마에 현실감을 부여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연기자들의 농구기량도 발전하고 있어 어설픔지 않고 실감있는 농구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승부」가 신세대 감각에 맞추어 그들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왕십리」는 중장년층에게 지나 가버린 날들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고 신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남자는 외로워」는 부유층의 허위의식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계층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풍부한 물질문명속에서 소외되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으며 그와는 달리 「서울의 달」은 인간의 '고독'이니 '소외'니를 사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듯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내용에 대한 고찰

소재의 다양함과 맞물려 내용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기 하지만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없어서 드라마별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승부」

친구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진화한 이동민(손지창 분)의 배신의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주된 갈등이 약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게다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친구까지 저버린 동민의 이미지가 냉혈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지창이라는 배우가 갖고있는 고정적 이미지인 미소년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다슬(심은하 분)이라는 여학생과 철준(장동건 분)과의 삼각관계로 갈등을 대치시켜 줌으로써 자칫 신선한 소재가 진부한 사랑싸움으로 퇴색될까 염려스럽다.

스포츠 드라마인 이 드라마에서 아직 스포츠 정신을 찾기는 어렵고 음주, 흡연장면이 너무 자주 방영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드라마의 주 시청층은 초중고생이고 또한 요즈음 청소년의 우상이다시피한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기에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과다한 음주, 흡연장면을 자제해줄길 바란다. 덧붙여 농구경기중 철준의 등 번호가 처음엔 9번이었다가 명성대와의 경기에선 22번으로 바뀌는 것(25일)과 한 경



기중에 점수판의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본다.

한편으로 이제까지 9시이후의 드라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과감히 신세대 감각의 드라마를 9시 이후 시간대에 방영을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기성세대가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왕십리」

1월 20일 막을 내린 왕십리는 소재는 색다른 것이 없으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잠시 잊었던 옛날의 모습을 「왕십리」라는 상징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던 드라마였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처음의 깔끔했던 연출이 중반부로 갈수록 단순한 사건을 지루하게 자꾸 반복하여 보여주며 맥이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 미니시리즈인 이 드라마에 이미 정해진 횟수를 무리하게 채우려다 보니 이런 결말을 가져오게 만든 것 같다. 등뒤에서 겨누어진 총구가 별 이유없이 거두어지고 다시 겨누어지고, 주인 공들의 만남도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구도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등 시간끌기식의 지루한 장면이 눈에 많이 띄었다. 또 마지막회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준태(천호진 분)가 보는 환영에서 하얀 눈발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정희(김보라 분)의 모습은 극히 내용과는 동떨어지고 어색하기 그



지없는 장면이었는데, 이를 너무 길게 보여준 것도 시간을 때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밖에 여겨지질 않았다.

그리고 여주인공인 정희의 마네킹같은 표정과 잘 때나 외출할 때나 변함없는 화장,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없는 매무새 등도 거부감을 주고 극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드라마의 방영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던지 아니면 전작제가 이루어졌더라면 극의 긴장감도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막을 내린 드라마였다.

「남자는 외로워」

물질의 풍요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일깨우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를 고민한 형식을 통해 제기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물들이 너무 회화화되어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지 않고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로 혼란스럽다. 그들간의 연결고리도 허술하여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염려스러우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사이에 뛰어드는 무공해 처녀라는 당실이(오연수 분)는 극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순박해 보이지 않는다. 오랜지족에게 쓰레기를 퍼부으며 폭언을 하는 당실의 행동도, 그런 그녀에게 이유없이 절절대는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 무리하게 여겨지며 개박사(백일섭 분)의 아



내가 넷이었는데 한집에서 살았고 또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은 황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자신의 실자리를 찾기 어려운 요즈음의 남성들이 느끼는 일상을 깨우는 이 드라마가 좀 정리되고 탄탄해진다면 사람들간의 화해와 인간본연의 자리찾기에 충분히 기여하리라 기대해 본다.

「서울의 달」

「남자는 외로워」와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면서 두 계층과 내용이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이 드라마는 우선 구성이 탄탄하고 인물들의 성격이 뚜렷하여 그들이 벌이는 이야기가 필연성을 갖게 한다. 등장인물들 각자가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 어느 한 인물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처지지 않아 배역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점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인지 연기자들의 연기도 자연스럽고 그들간의 호흡도 잘 맞아들어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제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산동네로 모여든 사람들의 애환을 잘 표현하면서도 무리없이 담담하게 그려낸 것도 제작진과 연기자들의 열의가 혼연일체가 되어 빚어낸 매우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3. 남성드라마에 비쳐지는 여성의 이미지

본회는 오랫동안 매스컴에 비쳐지는 여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 모니터해왔다. 시대변화에 따라 드라마속에서의 여성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여성을 따로 떼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남성, 여성을 구분짓지 않고 인간으로서 대등하게 묘사되길 원하는 것이다.

「마지막 승부」에서의 남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진취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슬을 놓고 겨누는 철준과 동민,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구태의연한 다슬의 모습은 신세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듯하고 오히려 매사에 적극적이고 분명한 미주(이상아 분)가 신세대 여성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선재(이종원 분)의 말끝마다 “계집애...”라는 단어는 방송에서는 자제해야 되는 호칭이 아닌지 생각해 주길 바라며, 오빠(철준)의 뒷바라지를 하는 여동생의 “나는 계집애니까...” 하는 표현도 현실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집안에서 아들에게 딸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왔으나 이제는 좀더 설득력있는 합당한 이유로 대체되어야 할 것 같다.

「왕십리」에서는 준태를 좋아하는 윤애(장서희 분)를 미국으로 떠나 보내면서 다른 남자를 팔려보내는 모습에서 여자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선심쓰듯 묶어주는 것도 지나친 남성우월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외로워」에서는 권장군의 아내, 만며느리, 류시형 박사의 아내 등 똑똑하고 능력있는 출세한 여자들과 사는 남자들은 여자

때문에 나약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왜곡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남자의 외로움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대결구도가 너무 극명하고 너무 극단적인 묘사로 여자들을 왜곡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오히려 여자들의 소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의 달」에서는 남녀를 그다지 구분짓지 않고 대립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여성의 이미지나 남성의 이미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요란스럽지 않게 묘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연출시키고 있다고 본다.

4. 맺는말

이번 드라마들이 특별히 ‘남성 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동안의 드라마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채 가정안에서 밀고 당기는 사랑싸움이나 미묘한 감정의 흐름내지 신변잡기에 머물러 있었고 직장을 묘사하더라도 주인공들의 신분을 대변해주는 둘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드라마의 세계를 넓히고자 하는 영역확대 선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사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사람사는 이야기이고 보면 흔히 여성, 남성을 구분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최루성 강한 드라마는 여성취향 드라마로, 선이 굵고 대범한 이야기는 남성 드라마로 포장하는 것도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굳이 ‘남성 드라마’임을 강조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드라마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든 여러모로 이 네편의 드라마는 드라마의 질적 향상을 예고한 드라마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다.

(정리: 전상금 / 본회 매스컴 모니터)

그동안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최루성 강한 드라마는 여성 취향 드라마로, 선이 굵고 대범한 이야기는 남성 드라마로 포장하는 것도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94년은 세계가정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목적

-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인식 제고
- 가정관련 정책의 수립, 진행, 감독을 위한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보장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간 협력 증진
- 가정관련 주요현안(교육, 보건, 인구 등) 및 여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설정경위

-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44/82호로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 일반국민의 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 IYF)로 선언

-추진기구

- 오스트리아 빈 UN사무국내에 "세계가정의 해 사무국"설치
- 사회개발국장 Henryk J. Sokalski를 세계가정의 해 조정위원장으로 임명

<UN의 권고>

-분야별 권고사항

- 고용에 있어서 평등보장(특히 여성의 권리보장)
-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 수립
-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
-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수립
- 인구의 질적향상을 위한 가족계획정책 수립
- 농촌지역의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편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별 권고사항

- 여성에 대한 여러분야에서의 평등보장(고용, 가족생활, 상속)
- 아동을 가정내 폭력과 유기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윤락 및 부당노동으로부터 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장애인 가정 지원의 가정내 장애인 보호기능 보장 및 장애인 재활기회 부여
- 가정에서의 노인 부양 기능 강화

-세계가정의 해 준비와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

- 모든 국가가 국가위원회 구성
- 모든 부문의 참여하에 관련사업 추진
- 세계가정의 해 기금조성 협조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94부터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제의

-권고사업

- 가족 관련 정책(주택, 보건, 가족계획, 아동, 여성 등)의 개발 및 개선
-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강조
- 남녀의 가사책임 분담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 가족구성원의 권리(특히, 여성·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도록 학교 교과과정 개정
- 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한 세계가정의 해 홍보
- 세계가정의 해 홍보자료(팸플렛, 포스터, 우표) 발간 배포
- 가족과 관련된 연구사업 실시
- 가족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국가적 행사를 위한 자원동원
-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참여 활성화

<세계가정의 해 공식 기장>

세계가정의 해 공식기장은 빈에 거주하는 스위스인 예술가 캐서린 린타시-폴리어가 고안하였다. 기장은 지붕으로 덮힌 심장모양이며 지붕과 심장모양은 다른 심장 모양과 연결되어 있어, 생명과 사랑은 물론 가정, 온정, 보호, 안정, 일체감, 인내심 등을 상징하고 있다. 이 고안은 또한 개방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로서의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이 고안을 사실상 개방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붓의 움직임은 개성, 계속성, 일말의 불확실성등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이라는 복합개념의 추상적 표현이며 가장 작은 민주주의의 단위로서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가정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부른
‘로리나 보비트 사건’

캐나다

캐나다는 최근 새로 제정한 이민지침에 따라 가정내 폭력에 10년간 시달려온 한 에콰도르 여성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전례를 남겼다.

이민 심의국은 오랫동안 남편에게 강간을 비롯한 각종 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아온 한 여성이 망명을 신청해 응에 따라 이를 심의한 끝에 만일 이 여성을 에콰도르로 돌려보낼 경우 남편은 물론, 경찰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 정치망명을 허용했다.

심의국은 이처럼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히 이민 담당 관리들에게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에게 망명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지침을 문서로 남겼다.

캐나다 이민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 외에도 새로운 지침이 몇몇 여성들의 이민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7월 이민 심의국은 아버지가 반군 게릴라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군으로부터 강간 위협을 받아온 과테말라의 10대 자매 두 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캐나다 연방 법원은 또 이민 담당 관리들에게 그들이 거부한 한 러시아 여성의 망명신청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켈거리에 일시 거주하는 이 여성은 러시아 범죄조직의 일원인 애인으로부터 폭행 당해 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지침은 앞으로도 성차별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성들의 망명신청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여성 운동가들은 당국의 태도가 이처럼 발전한 공을 이민, 난민 심사국의 신임 국장 누르제한 마와니에게 돌리고 있다. 마와니는 그 자신 영국을 통해 캐나

다에 이주한 케냐 출신 여성이다.

미국

여러 해 동안 남편에게 성폭행 당해 온 여성이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로리나 보비트 사건’은 가정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른 극단적 사례로 기록될만 하다.

미국 버지니아주 매나서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잠든 남편의 성기를 절단, 중상해죄로 기소된 로리나 보비트 피고인(24)에게 무죄평결을 내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배심원단은 보비트 부인이 여러 해에 걸친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 존 웨인 보비트(26)의 성기를 절단한 것은 ‘일시적 정신이상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평결했다.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이같은 평결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상태, 즉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에콰도르 태생인 보비트 부인은 지난해 남편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갖자 부엌칼로 잠든 남편의 성기를 잘라 내다 버린 죄로 기소됐으나 이번 무죄 평결로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최고 45일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습관적 성폭력에 대응해 또 다른 극단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여부, 또 남편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번 평결은 평상시의 피해자였던 위치가 일시적으로 뒤바뀐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시적 정신이상’이라는 도피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에 관해 직접적인 판단은 회피한 셈이다. 즉 두사람의 편으로

양극화한 여론을 의식, 둘 다 죄가 없다는 얼버무리기식 평결로 치열한 논쟁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회는 최근 자녀를 둔 여성들을 ‘독신모’로 인정, 국가가 제공하는 자녀양육 혜택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종교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을 기각당한 1만여명의 유대인 여성들에게 기다리던 낭보는 아니나 약간의 위안을 가져다 줄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혼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법원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남편만이 이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한 경우 20년 이상 남편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아구노트’(맞줄에 묶인 여성)들도 상당수 있다.

최근 종교부는 종교법원이 이들 아구노트의 완고한 남편들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 여권 발급, 또는 은행구좌 개설을 거부, 이혼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구노트 권리옹호자들은 이혼법의 개혁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스라엘 여성 네트워크의 한 로비스트는 “그만해도 여성의 고통을 약간은 덜어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버마/태국

해마다 버마에서는 약 1만2천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태국으로 불법 입국한다. 12살 소녀에서부터 시작, 젊은 나이의 이들 여성은 일자리를 약속하는 알선업자들의 뒤를 따라 국경을 몰래 넘는 것이지만 이들이 갈 길은 단 하나, ‘매춘’의 길 뿐이다.

최근 한 인권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태국내 매춘업소에서 노예상태로 살고 있는 버마 여성의 수는 3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얻어맞고 강간 당하며 얼마 안되는 수입에서 몸값을 갚아나가야만 한다. 몸값을 다 갚지 못하면 이들은 언제까지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예상태에서 몸을 팔아야만 한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인권감시)의 산하기구인 여권 프로젝트와 아시아 위치에 따르면 이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몸값 빚’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여권 프로젝트의 도로시 토머스 회장은 “이들은 하루 12~18시간씩을 일을 하고도 팁을 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이다. 그러나 입에 풀칠 하는 것 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권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버마 이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뿐만 아니라 태국 관계당국의 관련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기구가 면담한 50여명의 여성중 상당수는 매춘 알선업자들이 버마 여성들을 국경지역으로부터 밀입국시키는데 태국 경찰들이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밀 매춘업소들을 비호하기도 하는데 이같은 업소들은 무장 경비원을 시켜 이들 여성을 감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지 여성단체들로부터 항의와 압력이 잇따르자 태국 관리들은 이들 여성을 “구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태국 경찰들은 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들을 체포, 구금하고 수십명씩 무더기로 추방했다. 매춘업소 업주들과 알선자들이 경찰과의 안면 덕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영남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로리나보비트 사건은 습관적 성폭력에 대응해 또다른 극단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여부, 또 남편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로 관심을 모아왔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 (Ⅳ)

-사랑의 사회적 의미-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 강사)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남성은 일 지향적이고 여성은 사랑 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당연한 본성의 차이로 보는 것이 우세하다. 여성이 사랑 지향적, 또는 사랑 의존적이라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나와서 남성과 여성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Zich Rubin의 사

랑에 대한 연구-미국대학생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욱 사랑 의존적이며 여성의 사랑뒤에는 경제적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통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남녀의 차이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환원주의적 사고 체계에 사로잡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최소화시키고 남

성과 여성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배타적인 사랑관계만을 설정할 뿐이다.

사랑은 모든 예술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찬양,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반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고통당하며,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Maslow는 사랑이란 커다란 흥분과 황홀함과 의기가 고양되는 현상을 수반하는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으로 정의하였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어떤 그 앞에서는 어떤 사회적 장벽도 무력해지는 파괴적인 정열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운명적인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다. 사랑이란 다행이 기간이 길지않는 일종의 정신병 등이다. Engels를 포함한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어떤 의무나 장기적인 계약에 어울리지 않는 변덕스러운 감정이라고 하였다.

Eric Fromm은 사랑을 인간실존의 제한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고독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란 저절로 발생하여 유지되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훈련과 기술이 필요한 감정상태라고 하였다. 맹목적인 사랑은 인간의 기대와 희망을 반드시 실패와 좌절로 바꿀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랑에 대한 아무런 훈련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심리적 측면만이 있는 것인가? 사랑이란 개인

적인 수준의 것인가? Sarsby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낭만적인 사랑이란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채택된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여성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해볼때 가부장제적 체계에서 사랑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사랑은 여성에게 사회적 구원을 제시한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권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자연히 그들은 사회적 불만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우리사회의 문화는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진 사랑을 통해서 사회적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제시한다. 신데렐라와 동일시 하라고 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에 눈만 감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남성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사랑은 여성이 신데렐라처럼 귀부인으로 변할 수 있는 마술이라고 문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친다.

둘째, 사랑은 여성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도록 만들며 그들의 사회적 관심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한다.

여성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는 여성의 위치가 보이지는 않을 뿐더러 실제로 사회에는 여성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회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저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

절과 더 많은 패자만이 존재하는 경쟁터로 생각할 뿐이다. 이런 생각은 사회에는 왜 여성의 자리가 없는가를 묻는 대신에 이런 사회로부터 면제받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기가 쉽다. 이럴때 사랑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사랑은 여성의 특권이 된다. 여성은 이런 특권에 의해서 만이 남성의 힘과 능력의 혜택을 입어 여성의 보잘것 없는 사회적 능력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성취나 야심은 여성이 도전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성들은 인식한다. 이런것을 피해야만 여성들은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랑은 여성을 사적인 존재, 모험가로 만든다.

마크 안토니/클레오파트라, 에드워드 8세/심프슨부인, 등의 역사에 빛나는 사랑은 여성을 지나치게 감동시킨다.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자신이 성취한 명예, 권력, 부를 다 잃게 된다. 에드워드 8세는 왕관을 포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진 것으로서 오직 한 개인에게만 집착하는 것이다.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것을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것이다. 남성도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공적인 자리를 포기하는데, 하물며 사회에서 어떤 자리도 없는 여성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인식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랑은 결국 여성을 사적인 존재로 만들며 여성들이 만들어 낼 수 있



는 사회적 긴장, 불만, 저항을 충분히 막아낸다. 춘향전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애문학이다. 춘향이의 가치는 그녀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는 정절에 대한 가치이다. 춘향이는 여성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한 남성에게 끈질기게 집착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우리는 춘향이가 신분상승과 함께 부·명예·권력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오로지 이도령 개인의 의도에 달려 있다. 이도령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신뢰할만한 사람인가? 적어도 작품에 표현되어진대로 라면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춘향이가 이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자신을 변장하여 잔인하게 춘향이를 또 시험한다. 이 도령은 춘향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의 정절을 사랑한다. 그러나 춘향이의 정절뒤에는 춘향이의 야심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 도령은 춘향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일단은 안심한 것이다. 우리들은 과연 의심많은 이 도령이 이 사건 이후로도 춘향이를 평생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춘향이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다. TV드라마 "결혼"의 주인공 여성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장래를, 부모의 기대를 모두 버렸다. 그러나 그

사랑은 여성주인공의 행복을 또는 그의 어떤것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젊었던 시절, 많은 가능성과 재능,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여성들이 10년 20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단 드라마뿐이 아니다. 모험은 잘될 수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흔히들 제도가 이런 파멸을 막아 주고 여성을 보호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그 한계가 있고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네번째, 사랑은 건강한 남녀관계를 방해한다.

남녀간의 다른 생활영역, 다른 관심사는 남, 녀간의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하며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인간적인 상호교류도 힘이 든다. 흔히들 남, 여성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 두 성은 같은 인간이지만 지나치게 그 차이를 강조하고 그것을 매력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만든다. Hite report에 의하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보다 여자 친구를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은 남녀간의 인간적인 매력도 성과 연결 시키는 문화 때문에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은 항상 멀리 있어야 한다.

다섯번째, 사랑은 여성들끼리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일단 사랑에 빠지면 사

람이 자기인생의 유일한 목적, 완성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자기의 사랑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여성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며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경쟁자로서 다른 여성을 경계한다. 마치 그들이 자기 행복의 약탈자, 자기인생의 파괴자인 것처럼 증오하고 분노한다. 사쿠라이 히데노리는 "여성을 모르고 일 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여성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상관이 그 여직원 앞에서 다른 여직원을 칭찬하면 이 여성은 그 상관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은 동료 여직원을 싫어 한다. 또한 남편에게 애인이 생기면 그 남편의 아내는 남편보다 상대여성을 더욱 증오한다.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여성들이 아무 대책 없이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적신호로 받아 들인다. 그 결과 사랑은 같은 여성을 분리시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상으로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사랑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사랑은 여성에게 불안한 사회적 구원을 제시하며 여성의 사회적 관심을 저하 시키며 여성의 남성관계, 여성의 여성관계에서도 불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 서로 소외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모든 관계가 다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같이 사랑이 본래 의미에서 벗

남녀간의 다른 생활영역, 다른 관심사는 남, 녀간의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하며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인간적인 상호교류도 힘이 든다. 흔히들 남, 여성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 두 성은 같은 인간이지만 지나치게 그 차이를 강조하고 그것을 매력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만든다.



어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인간적인 조건의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사랑의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과 이 조건이 실제의 사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다운 태도, 외모는 여성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우리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때 여성은 여성다운 수록

남성은 남성다운수록 각자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각자 상대방의 영역을 모를수록 더욱 매력적이며 남성같은 여성, 여성같은 남성은 서로가 이성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두 성의 단절된 관심과 흥미, 가치관, 생활사가 여성의 신비스러움, 남성의 우월성을 유지해주는 비결이 된다. 서로에 대한 무지가 두 사람을 이어 주는 사랑의 끈이 된다고 생각한다. Zich Rubin은 사랑같은 감정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love scale을 만들어 사랑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한 학자이다. 그는 사랑의 형태를 정열적인 사랑과 동

반자적 사랑으로 나누었다. 정열적인 사랑은 강렬한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며, 걱정, 초조, 성적욕구, 정열 등의 복합적인 감정의 상태를 동반한다. 이러한 사랑에 빠지면 육체적 증상으로는 심장의 고동속도가 증가하며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소화장애가 오고 커다란 흥분으로 개인의 사고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어딘가에 홀린 기분이 들고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면 쉽게 좌절감과 불행감에 빠진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최초에 느꼈던 정열적인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관계의 초기에 무지와 흥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다.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의 불같은 감정이 사라지면 둘의 관계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곧바로 사랑의 종말로 받아 들인다. 동반자적 사랑은 평소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내면서 키워온 우정의 기반에서 확대된 것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상대방의 이해가 앞선다. 현대 심리학 이란 학술잡지의 "스스로 사랑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성적인 동기와 갈망을 가진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이해, 우정, 헌신, 지적인 동질성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동반자적 사랑이 정열적인 사랑에 비해서 관계의 안정과 서로의 이해와 친밀감, 지속성을 가져다 주며, 남, 녀관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다. 정열적인 사랑이 무지에 기반하고 있는 점에 비해 동반자적 사랑은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와 상당한 기간동안 쌓아온 우정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녀간, 서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온 남,녀간의 분리, 서로간의 단절, 다른 관심은 남,녀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은 될 수 있어도 동반자적 사랑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여성의 외모는 여성이 남성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외모가 남성의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데 극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다. 그러나, 관계 초기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향이 있지만 관계가 진행 될수록 그 영향력은 감소한다.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는 개인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관한 Meneil & Rubin의 연구를 보면 상대방의 외모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현실 적응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만드는 관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보다 친밀성이 부족하며 관계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개체성을 중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며, 사교적,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보다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성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친밀하며, 로맨틱하고 지속성이 강하다고 한다. 남성과의 사랑관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사랑의 사회적 의미를 요약하면 사랑은 여성에게 불안한 사회적 구원을 제시하며 여성의 사회적 관심을 저하 시키며 여성의 남성관계, 여성의 여성관계에서도 불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 서로 소외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모든 관계가 다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계에서 여성의 외모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여성들은 인간적인 능력, 매력을 가꾸기 보다는 외모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위의 연구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여성과 남성을 왜곡하며, 그 관계도 왜곡하고 있다. 거기에는 남,녀간의 사랑관계란 소유와 지배, 의존과 복종의 개념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서로를 멀리하고 증오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좌절시키는 비인간적 관계를 만든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의 제한된 영역, 관심, 흥미 등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인간화시키는 여성물의 규격화, 미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버리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능력과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여 인간적인 사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랑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다. 한 심리학자의 말대로 사랑속에서 두 사람이 성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실 사랑은 안정과 흥분이라는 모순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면 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확신할 수 있는 안정을 원하지만 또한 반면에 새로운 흥분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욕구를 동시에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항상 성장하고 변화해야만 한다.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위기센터가 지난해 12월 13일 문을 열었다. 위기센터에는 증거채취실을 만들어 산부인과 진료대와 증거보관함, 질경, 자외선 기구 소독기 등이 비치됐다. 위기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원, 지킴이, 당직자 등이 24시간 위기센터를 지키고 9명의 산부인과 의사 및 정신과 의사가 당번제로 위기센터를 방문 치료를 한다.

성폭력특별법 국회 통과

3년 동안 여성계가 전력투구한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16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친고죄 전면폐지, 정죄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 침해권으로의 개념 규정 전환 등 그간 여성계가 주장해 왔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성폭력특별법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첨가해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또 민간인이 성폭력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뒤따라야 함을 명시해 놓고 있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발표

총무처는 지난해 말 국가적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없애는 1차적 노력을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없이 보직할 것과 근무성적평정에서 여성이라 해서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채용,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 7개 분야에 걸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은 차별의 핵심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보직관리나 근무평정상의 '관행상' 차별을 점차 시정,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행정대학원협의회

첫 여성회장 선출

고정명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이 지난해 말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행정 대학원장협의회에서 첫 여성회장으로 선출됐다. 고정명 회장은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대학원 본연의 취지를 살려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미국 국제행정대학원 협의회(NASPA) 가입을 통해 대학원의 국제화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에 김숙희씨, 정무2 보좌관에 김영순씨 임명

14개부의 장관이 경질된 지난해 12월 21일 단행된 전면적인 개각에서 김숙희 이화여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이화여대 졸업, 미국 텍사스 여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이대교수로 재직했고 대한 YWCA 회장, 한국영양학회장, 이대 가정대학장을 역임했다. 대한 YWCA연합회는 1월 15일 김숙희 교육부장관 취임 축하모임을 마련했다.

한편 개각에 이어 27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

발표에서 민자당 여성국 김영순(44) 국장이 정무장관(제2) 보좌관(차관급)으로 임명됐다. 김영순 국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이대 정외과,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민주당 시절 김영삼 대표 최고의원 여성정책 보좌역을 지낸바 있으며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교수를 역임 한 바 있다.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보좌관제 도입으로 활성화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전문가워크숍」에서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율과 기초, 광역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하거나 가정과 생업활동에 따른 의정활동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일비, 여비, 의정활동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각종 행사시 금품요구' '개인의 민언청탁' '해정공무원의 의식부족' '성차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KBS, 사무직 첫 직장택아방 문 열어

사무직으로는 처음으로 KBS가 지난 1월 17일, KBS 신관 뒤 연구동에 3동에 29평 규모의 직장택아방, 'KBS 어린이집'을 열었다. 노동조합여성국(국장 유애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KBS 어린이집에는 현재 4~5세 아동 15명이 보육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화 논쟁

최근 노동부가 여성의 취업 문호를 넓히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 현재 60일로

되어 있는 산전, 산후유급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근로여성복지계획안」을 내놓자 여성계에 생리휴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87년 부터 실시돼온 생리휴가는 그간 경영주들의 강한 반발로 존폐론이 제기돼 오다 이번 노동부의 계획안에 본격적으로 거론 됨으로써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

여성계 내부에서도 생리휴가 무급전환이 기업의 여성고용을 촉진 시킬 수 있고 출산휴가 연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건이 개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는 것은 모성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도 주장하는 쪽으로 양분 된 상태.

과천시 주부시정 평가단 구성

과천시에 '주부시정평가단'이 구성됐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천 지역 주부 46명을 위촉, 구성된 '주부시정평가단'은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과천시정의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된다.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한국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가 1월 7일 오후 3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는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 여성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정치상담실 문 연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손봉숙)에서는 2월 15일 여성정치지도자를 위한 무료 정치상담실을 연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개방되는 여성정치상담실에서는 입후보에

서 부터 선거전략수립, 조직정비 등 선거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을 해 준다.

최영애 한국성폭력 상담소장 여성동아 대상 수상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1월 14일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여성지 「여성동아」가 선정한 제11회 「여성동아 대상」 수상자로 뽑혀 상패와 상금 2백만원을 받았다.

▶ 협의회 소식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 조사결과 나와

본회가 지난해 11월 중 실시한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부인식 조사」 결과가 12월말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자녀교육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자녀의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 정도 및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알아보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시켜 총 80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김영순 신임 정무 제2보좌관 방문

김경오 회장은 지난 1월 15일 김영순 정무제2 보좌관의 신임인사차 방문을 받고 여성문제 등 여성계 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

고아원 및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

본회는 지난 연말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12월 21일 고아원인 혜심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과일과 부식을 전달한 데 이어 신문배달원 및 청소년 10여명에게 선물을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첫 여성이사 김기업씨

김기업씨(61)가 여성관료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이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9월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 자리를 마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긴 지 3개월 만에 중책을 맡게 된 것.

황금희 (여성신문 기자)

달했다.

영문책자 「The Woman」 발간

본회가 65년이래 매년 꾸준히 발간해온 영문책자 「The Woman」이 93년에는 12월 중순에 발간돼, 세계 각국의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구들에 보내졌다.

93년 제30회 전국여성대회 전경사진을 표지로 담고 있는 이 책자는 총 92페이지에 걸쳐 지난 1년 동안의 본회의 사업 내용 및 회원단체 활동은 물론 국내 여성계 전반의 소식을 실고 전국여성대회의 강연내용과 여성계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의 논문들을 실었다.

대한간호협회

차기회장단, 임원후보명단 발표

지난해 12월 8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4대 회장 후보로 확정된 최영희(이화여자대학 교수) 회장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에 김화중(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제2부회장 후보에 최국미(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간호부장)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성례)는 회장단을 비롯하여 이사후보 22명 감사후보 3명 등 임원후보자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6일 공식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월 23, 24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자리에서 대의원 선거에 의해 회장단 및 임원(이사10명 감사2명)이 선출되게 된다.

제2차 장기사업이 마무리 된 1993년을 보내고 제3차 장기사업 계획(1994~1998년)의 첫발을 디디게 되는 새로운 임원진의 활동에 큰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국제화, 전문화 추세에 따른 간호계의 변화와 대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이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94년도 제2회 조리기능사
시험응시 훈련생 모집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조리기능훈련원에서는 '94년 제2회 조리기능사 시험에 응시코자 원하는

조리기능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한식과 양식 전문반을 운영하고 있는 본 조리훈련원은 수료 후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좋은 여건의 취업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여성, 미진학 청소년들의 적극 활용을 바란다.

①제2회 조리기능 시험일자(필기시험)

1994년 4월 10일(일)

②교육과정:

한식, 양식조리기능전문반(각3개월 과정임.)

③모집인원: 각반 50명씩

④문의처: 한국조리기능훈련원(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전화 833-1624, 845-7925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57개동 순회교육 성료 축하모임
및 송년회

동회는 지난 12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중앙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57개동 순회교육 성료 축하모임 및 1년을 결산하고 마감하는 송년회의 시간을 가졌다.

1부는 이회옥 부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93년 활동보고 및 순회교육 경과보고, 회계보고, 문상회 회장의 인사말, 정대화 고문의 격려사, 국제승공연합유종관 사무총장의 축사, 정정식 용산구회장과 한명희 중구회장의 성공사례발표, 축하제의 컷팅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조동옥 부장의 사회로 서로 화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회는 순회교육을 통하여 회원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사회의 근본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타주의의 생활과 가정내에서의 사랑의 질서확립을 제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각구 회장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의 사고와 의식이 변화되고 더욱더 단합되어가는것을 보면서 이러한 순회교육의 장이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 임원들은 순회교육의 성공적인 종료를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94년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여성지도자 초청강연회

동회는 1월 14일 뉴서울호텔에서 각계 여성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국가와 경제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본 주제강연을 한 황인태 소장(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협상타결로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선 국내외 경제동향을 설명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만을 위해 소홀히했던 기술혁신, 신상품개발, 기업경영의 혁신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피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국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여성지도자들이 술선수범하여 그러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새회장에 현지수 부회장 취임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해 1993년 6월 24일 임시정기총회의 선거를 거쳐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현지수 부회장이 1월 10일 회장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경오 회장님의 축사와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창립회장인 편정희 회장님의 격려사, 여성개발원의 이요식 부위원장님 등 내외귀빈을 모시고 취임식을 가진 현지수 신임회장은 내외귀빈과 여러임원 및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저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특별회원 성경공부 및
절제장학금 지급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는 지난 93년 12월 27일에 특별회원 성경공부 및 4분기 장학금 지급이 있었다. 이날 김정주 사무총장은 '그리스도 탄생의 참된 의미'란 제목으로 성경강해를 하였으며, 그 후에 가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27명의 결혼가정, 중·고등학생에게 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독일 유학중인 신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동회는 선교지원으로 늘샘교회와 신망애교회의 건축을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절제 달력 제작 및 배포

술·담배의 해독을 경고하는 달력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48지회 및 해외지회, 세계 절제회장단, 각국 회장,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교도소 등에 배포하여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절제 특강

김정주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13일에는 고신측 경기도 여전대회에서, 지난 12월 18일에는 홍익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회원들과 학생들에게 술·담배·마약의 해독을 알리는 절제 특강을 하여 절제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여학사협회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여학사협회는 1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본회 2층 강당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한말숙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고, 뒤따라 '9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9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곧 이어 정관개정과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선임에 들어갔다. 작년도 43차 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3장 11조)를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감독청(북부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조항을 수정,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의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 다시 상정,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감사의 선임은 현재의 김인숙, 남궁옥강 두 감사를
유임시키자는 안이 채택 표결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되었다.

자녀를 위한 「글짓기 교실」 실시

대한여학사협회는 작년말 자녀를 위한 「회원 독서교실」에 이어 「자녀를 위한 글짓기 교실」을 12월 30일부터 1월 24일 사이 주 2회씩 8회에 걸쳐 본 회관에서 열었다.

「글짓기 교실」은 초등반(국민학교 4학년 이상)과 중등반(중 1~3학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이론보다는 작문에 역점을 두었다.

매주 월·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한 이번 「글짓기 교실을 통하여 국민학교·중학교 학생에 이르는 수강생은 원고 쓰는 법, 문장 구성법, 문장다듬기 등을 배웠다.

또한 수강생은 남의 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각자가 쓴 시, 일기, 기행문, 사설 등을 발표한 후 서로 서로가 평한 다음 지도 교사로부터 어색한 문장을 교정 받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illegible]

회원 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중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이옥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중구 영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혜단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상유치원 208호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록숙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정숙자	중구 불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태숙	성동구 종로4동 64-30 24동1번	457-7961
한국국민수련회	김은희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연	서대문구 홍은동 285-90	303-2112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연숙	양천구 산정동 옥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광창동 537-9	352-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순덕	서초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개협회	이예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4층	631-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련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현지수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서은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송공연합전국여성회	문상희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김순자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숙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경정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90-5200
한국퇴역군인회	정영숙	서초구 양재동 342-5 협진빌딩 201호	571-2999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유수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편집후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게 마련.

93년의 시작에 희망찬 포부를 밝히며
의욕을 다지던 때에서 이제는 그 해를 매듭
짓고 94년 새해의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2월 총회에서 새 임원진이 선출돼
새롭게 단장할 여협도 만남과 이별의
식점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월간여성 ● 1994년 1·2월호 통권 315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한라기화

발행일자: 1994년 2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조장순

위원: 김효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은경 / 신동식 / 오종자 / 박영혜

담당: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
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
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혈액순환개선제는 역시 생마늘 기름성분으로 만든 「두리방」이 좋습니다!

두리방 1캡셀에는 생마늘 기름
300mg이 들어있습니다.

두리방을 1일 3캡셀씩 장상 복용하시면
생마늘 기름(갈릭오일)을 총 900mg 섭취하게
되며, 이만큼의 생마늘 기름(갈릭오일)은
혈액순환장애 및 말초혈관의 혈류를
개선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적당한
함량입니다. 이제 두리방으로 혈액순환과
말초혈관장애를 개선시켜 건강을 지키십시오.

혈액순환·말초혈관 개선에

두리방

■ 주수익자를 제조(주)가온(KOMP)사에서
장점의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표준소매가: 150캡셀 ₩31,000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으셨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